

극동의 성배 민족은 '단지파 한민족'

유럽 녹색운동과 유기농운동, 그리고 생명과 영성 대안교육의 발도르프 학교 창시자이기도 한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작고하기 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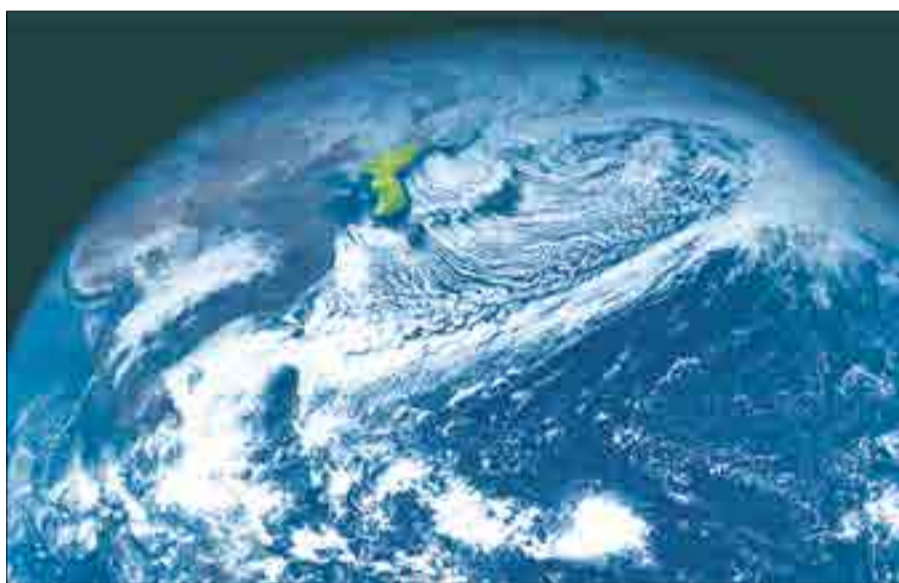
“인류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동적인 꿈과 이상을 내성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출처: 한문화타임즈, 『루돌프 슈타이너의 유언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을 찾아 경배하라'』 2020.07.26, 에서

단군민족의 뿌리, 단지파

하나님은 창세 이후 잃어버린 에덴동산 지상낙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한 씨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배출과 인류구원의 섭리의 역사를 해 오셨다. 그 예로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 12파 자손들의 장래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9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부족인 단지파에 대하여 심판권을 축복하고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그 민족이 바로 단군신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이 구세주 정도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다.

단군민족이 그 이전의 뿌리 역사를 잃어버리고 신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천손지계 정주민족으로서 정자 인류를 심판할 구세주 정도령을 출현시켜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상에서 사라지게 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창세기 30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은 '단'의 출생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에는 '단'의 후손 '단지파'가 그 기업을 찾아 북동쪽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단군을 낳았다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아버지로부터 천부인 세 개를 받아 흥익인간의 역사를 위하여 삼위태백으로 내려왔다는 내용과 맥이 이어진다.



▲ 해바라기 8호(ひまわり8號)의 일본 기상위성 촬영 (2014.12.18. AM 11:40) 2014년 한반도에서는 12월과 시작과 함께 이례적인 초겨울의 폭설(暴雪)과 한파(寒波)로 재해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위의 기상사진(氣象寫眞)에서 알 수 있듯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구세주 정도령께서 눈 구름대를 대한민국(녹색 부분) 영토 밖으로 내몰고 있다.

이를 증거하는 고고학적 자료나 두 민족의 고대 문화풍속과 가장 친숙한 부모의 호칭을 '해네, 에미라 부르는 등 '니, 이모, 이미' 등의 호칭이 우리말과 일치하고 있음이 성경 신학자들에게 의해 밝혀지고 있다. 전통풍속에 있어서도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장자상속제도나, 후손을 잇기 위한 '씨반이' 제도와 '형사취수제도(死取親制度)', 장례 풍속에서 삼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애곡하는 소리나, 강화도 마니산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 '돌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속이 그러하며, 국립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히브리어 문양의 기와장(瓦瓦當)'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통문화 풍속이나 언어가 같은 내용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의 조상인 고대 수메르민족이 우리말과 문화풍속이 똑같은 내용들을 공유함을 성경 신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땅 끝, 땅 모퉁이에 해당하는 극동(極東)의 반도(peninsula, 半島)에서 구세주 출현

한민족이 잃어버린 고대의 뿌리 역사를 찾기 위하여 중국과 몽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유물유적과 문화풍속을 연구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잃어버린 한 부족을 찾고 있으나 세계 어디에도 단지파의 행방을 아는 민족은 없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마지막 때 메시아, 구세주, 이긴자를 배출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회복하는 역사를 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형태를 바꾸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3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가지면서도 그들과 언어와 역사, 관습이 상당부분 다른 민족으로 세탁해 버렸기 때문이다. 외모나 피부 색깔이 있

앞으로 조선 땅은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격암유록(格菴遺錄)의 생초지략(生初之樂)에서 그 주인공인 정도령의 출현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上帝之子斗牛星 西洋結冤離去後 상제지자두우성 서양결원리거후 二十世後今時當 東方出現結冤解 이십세후금시당 동방출현결원해 伏亞宗佛彌勒王 人間解冤此今日 불아종불미특왕 인간해원차금일

상제 하나님의 아들 복두칠성이 서양(성경의 에덴동산)에서 한 맺힌 이별을 한 후에 이십 세기 후반을 당한 지금 동방에서 출현하여 맺힌 한을 풀게 되는데 그가 바로 불가에서 예언한 미륵왕(미륵부처님)이다. 인간의 맺힌 원한을 푸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다.

인간의 맺힌 한이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아담, 해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을 다시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요, 인간의 한을 푸는 것이다.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다. 이미 그 주인공이 동방 땅 끝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1980년 10월 15일 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기신 하나님(十勝)이 되셨으니 그가 바로 성경의 이긴자요, 격암유록의 정도령이요, 불교의 미륵부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이다.

한민족의 대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주인공의 출생지와 생사, 이름, 연단장소,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풍운 조화 능력과 분신의 능력까지도 예언하고 있으며(위의 기상위성 사진 참조), 말세에 일어날 괴질로 죽어갈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세주의 감로해인, 감로수, 이슬성신의 도(道)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은 단지파 민족인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세계 모든 역사가들과 성경 역사가들과 한민족 역사가들이 공동으로 밝혀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문제는 구세주 하나님의 감로 이슬성령의 역사와 영성의 역사가 한민족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구세주의 역사는 모든 국가의 연구의 대상이 반드시 되고 따라가야만 하는 역사이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1>

“선악과는 세상 과일이 아니라 원수 마귀였다”

만약에 선악과가 기성교회 목사들의 말처럼 세상의 과일이라면 따 먹으면 죽을 독약과 같은 것을 어린이가 천진난만하게 노는 방 가운데 놓아두고 이걸 먹으면 죽으니 먹지 말고 이라며 밖으로 나갈 부모가 있었는가?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설령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탐스럽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어린이가 먹고 죽을

것을 염려하여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치워버릴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미리 치워버리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선악과가 세상 과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제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길 수 없었던 원수 마귀였던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육부六腑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소장(小腸)

옛말에 '배알이 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창자가 꼬여서 속이 아프거나 편치 않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행동이나 말이 비위에 맞지 않고 아니 짧게 느껴질 때 씁니다. 성질이 몸의 장기와 관련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소장은 대부분의 음식물이 섭취·흡수되는 곳입니다. 소장은 길이가 약 67-76cm이고 돌돌 말려 있으며 복강의 중앙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얇은 막으로 된 장간막(腸間膜)이 소장을 지탱하고 매달려 있게 하는데, 장간막은 넓은 혈관망으로 장기가 열기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지방을 함유합니다. 소장을 지탱하는 신경은 자율신경으로서, 부교감신경은 근육수축을 일으켜 음식물이 관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교감신경은 소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출물이 내장을 향해 나와 있습니다. 이들 구조물은 분비·흡수를 위해 표면적을 크게 증가시키고, 소장 벽에는 많은 미세한 샘이 있습니다. 십이지장의 점막 하조직에 있는 브루너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주로 소장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점막에 있는 리베르킨선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브루너선의 출구가 되며, 용털 끝에서 떨어지거나 표피막세포를 대체할 세포를 만듭니다. 연동운동은 소화중심 물질을 소장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반면, 울동성 분절이라고 하는 휘젓는 운동은 음식을 기계적으로 부수고, 체장·간·소장벽 배하는 신경은 자율신경으로서, 부교감신경은 근육수축을 일으켜 음식물이 관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교감신경은 소장의 운동을 억제합니다. 사람이나 기타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소장을 십이지장(十二指腸)·공장(空腸)·회장(回腸) 3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각 부분들은 하나로 이어진 관이며, 각 부분이 독특한 차이점들을 보이니 해부적으로 뚜렷한 구분들은 없습니다. 사람이나 기타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소장을 십이지장(十二指腸)·공장(空腸)·회장(回腸) 3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각 부분들은 하나로 이어진 관이며, 각 부분이 독특한 차이점들을 보이니 해부적으로 뚜렷한 구분들은 없습니다.

사람이나 기타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소장을 십이지장(十二指腸)·공장(空腸)·회장(回腸) 3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각 부분들은 하나로 이어진 관이며, 각 부분이 독특한 차이점들을 보이니 해부적으로 뚜렷한 구분들은 없습니다. 간·담낭·췌장의 관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위에서 넘어오는 산을 중화시키고 단백질·탄수화물·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냅니다. 2번째 부분인 공장(胃)은 복부 중앙에 있고 십이지장을 제외한 나머지 소장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공장은 혈액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짙은 적색으로 공장의 연동운동은 빠르고 격렬하며 공장을 지탱하는 장간막에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3번째 부분인 회장은 허복부에 있고, 회장의 벽은 공장보다 더 가늘고 얇으며, 혈액공급은 더 제한되고, 연동운동은 더 느리며, 장간막에는 지방이 더 많습니다. 소장의 장벽을 이루는 점막은 돌림 주름(윤상주름)이라고 하는 횡주름을 이루며, 고등척추동물에는 용털(융모)이라고 하는 미세한 손가락 모양의 돌

출물이 내장을 향해 나와 있습니다. 이들 구조물은 분비·흡수를 위해 표면적을 크게 증가시키고, 소장 벽에는 많은 미세한 샘이 있습니다. 십이지장의 점막 하조직에 있는 브루너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주로 소장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점막에 있는 리베르킨선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브루너선의 출구가 되며, 용털 끝에서 떨어지거나 표피막세포를 대체할 세포를 만듭니다. 연동운동은 소화중심 물질을 소장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반면, 울동성 분절이라고 하는 휘젓는 운동은 음식을 기계적으로 부수고, 체장·간·소장벽 배하는 신경은 자율신경으로서, 부교감신경은 근육수축을 일으켜 음식물이 관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교감신경은 소장의 운동을 억제합니다. 사람이나 기타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소장을 십이지장(十二指腸)·공장(空腸)·회장(回腸) 3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각 부분들은 하나로 이어진 관이며, 각 부분이 독특한 차이점들을 보이니 해부적으로 뚜렷한 구분들은 없습니다. 사람이나 기타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소장을 십이지장(十二指腸)·공장(空腸)·회장(回腸) 3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각 부분들은 하나로 이어진 관이며, 각 부분이 독특한 차이점들을 보이니 해부적으로 뚜렷한 구분들은 없습니다.

김주호 기자

나를 이기는 삶

행운을 부르는 법칙은 따로 없다. 행운은 나를 이기는 삶을 좇아 나를 뿐이다. 운이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절대 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運)이란 '말어진 것을 이루어주는 것' '망가진 것을 고쳐주는 것'이다. 그러나 운이란 끊임없이 올라가는 시간과 세월 중에 현재 시작하고 언제 거둬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 시기, 주제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다운 사람, 진짜 사람이 되면 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이 책에서 권하는 지혜로운 글대로 행하는 분들은 운이 활짝 열릴 것이다. 태운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박철순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다. 어머니부터 고개를 다지면서 저서로써 종교개혁을 경험하게 되었고, 유년시절 교회, 목사부, 학생회, 청년회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무궁무진한 기회, 모인력 민족의 빛 무궁무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통해 자아의 정진세계와 영적인 운명을 가리게 되었고, 살면서 생활의 지혜가 될 만한 글은 통째로 작성·선정하고 있다. jcs0330@naver.com

신간서적

도서출판 해인



46면 / 256원 / 13,800원 / 도서출판 해인
TEL : (032) 343-9985 Email: bookman5@naver.com

읽으면 좋을 책 『노화의 종말』



『노화의 종말』은 노화와 유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25년 장수 연구를 집대성해 최초로 공개하는 저작이다. 자신의 하버드 의대 연구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연구자와 연구실에서 이루어져 온 주요 최신 성과를 총망라한 이 책은 수명과 장수, 인간과 생명의 패

러다임까지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과 비밀을 담고 있다. 저자는 “노화는 정상이 아니라 질병이며, 이 병은 치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연하고 중단하고 역전시킬 수” 있으며 “노화만 해결하면 모든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 누구나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